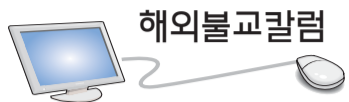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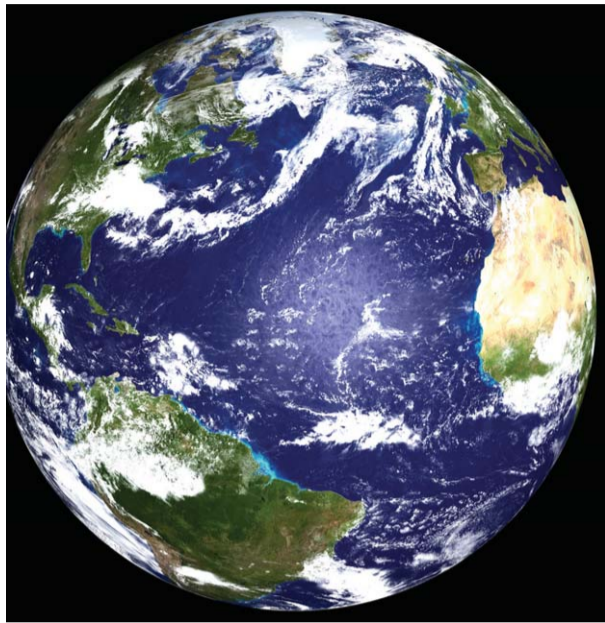
‘지구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지구가 심상치 않다.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공습과 중국 쓰촨성의 대규모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지구의 심상치 않은 징후들을 바라보면서 지구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은 모든 인류가 지구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깨닫고 당면문제의 해결을 함께 생각해보는 지구의 날이다.

세계 184개국의 약 5만여 단체와 5억 이상의 지구촌 가족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현지 여건에 맞춰 자유롭고 다채로운 행사를 치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그 첫 행사를 개최한 이래 점차 그 규모와 활동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다. 지구의 날 선포는 1969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기름유출사고가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이듬해인 1970년 7월 22일 미국의 게이롤드 닐슨 상원의원은 그와 같은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재발을 억제하자면 범국민적 동의와 적극적인 홍보가 급선무라 판단하고 역동성과 파급성이 강한 사회선도 제정인 대학가로 파고든다.

그즈음 뉴욕타임스지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있다. ‘최근 들어 베트남전쟁반대와 환경위기의 의식이 전국 캠퍼스를 휩쓸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며, 특히 환경생태문제와 유관한 제반법규 등의 제정과 엄정한 준수를 촉구하고 자 내내 볼 전국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닐슨 상원의원은 하버드 재학생인 데니스 헤이즈를 기획조정 담당으로 영입했다.’ 곧이어 그들이 발표한 지구의 날 선언문은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를 위해 지금껏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유지해온 전통적 질서가 파괴됨을 경고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일반시민의 의식개혁 및 생활문화개선을 촉구한다. 이는 ‘살만한 지구’란 간단명료한 화두이자, ‘살만한 지구를 가꾸고 지켜가자



지구상의 자연재원은 인류에게 지구보호의 커다란 사명을 새삼스럽게 인식시키고 있다.

면 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지혜와 방편의 모색이기도 하다. 지구의 날을 맞아 국제전법기구인 ‘보리만달라’에서 보내온 기념메시지, 그리고 그 내용 중 포함된 달라이 라마의 치사를 우리 불자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하 보리만달라의 원문)
“오늘은 지구의 날이다. 오늘날이라도 모든 지구촌 이웃들과 우리들의 어깨를 내내 짓눌러 온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두자. 그리고 우리 영혼의 고향이며 한없이 자라는 ‘어머니 지구’ 앞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리자. 우리는 한 모금의 숨을 들이쉬 때마다 가없는 우주 공간에서 우리의 불행수행과 실천을 허락해주는 유일한 곳인 어머니 지구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 모금의 숨을 내쉬 때마다 우리에게 삶과 희망을 주며 큰 깨우침의 작은 모서리나마 스치도록 허락해 준 이 거룩한 어머니 행성에 감사

를 드려야 한다. 이 뜻 깊은 지구의 날을 맞아 달라이 라마 성하게서 지구촌의 중생들에게 베푸신 말씀들을 다음과 전한다.”

(이하 위의 원문에 첨부된 달라이 라마의 치사)
“오늘날 우리는 인구과잉 및 천연자원의 남비와 고갈, 그리고 공기와 물과 나무를 위협하는 환경 생태적 위기에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 공간 속의 작은 행성이 이 지구촌은 온갖 중생이 잠시 들

출처: BM, NYT / 편역: 성유 스님

“더불어 살게하는 대자비 실천”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스티븐시걸 ④

할리우드의 모든 스타들이 흔히 우리 눈에 보이듯 늘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건 아니다. 그들은 집투와 견제라는 단어들에 의해 사치스러운 만지 잔혹한 경쟁과 추악한 시비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가 혹한 생존경쟁에서 자칫 밀리는 순간, 그들은 인기 인으로서 치명적인 망각과 도태의 대상이 되고 만다. 할리우드는 미국 전역에서 인구분포에 비해 정신신경계 병원과 의료시설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다. 게다가 사이언톨로지 등 각종 신종 유사종교 및 캄프의 집결지이며 중국의 풍수에서 고대 이집트 점성술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온갖 점쟁이들이 연중성업 중인 곳이다. 날마다 푸닥거리라도 해야 할 거칠고 굶은 일이 그만큼 많은 동네라는 얘기가. 스크린에선 과메기 다발처럼 줄줄이 터지는 악당들을 손목만 비틀어서 척척 해치우는 시걸 도반조차 할리우드식 스퀘드 파상군세에는 어지간히 지쳤던지 이런 말을 한다.

“제가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어떤 분들은 개를 보고, 또 다른 분들은 소를 보더군요. 그래서 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개든 소든 온갖 중생이 되고 말죠. 그게 그 분들이 지닌 인지능력의 한계니 난들 어찌 하겠어요?”

하지만 그는 어느 할리우드 불자 스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잡음에 시시콜콜 대응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전혀 다른 답답한 길을 택한다. 즉, 무조건적인 자비공덕과 원용화합의 보살행이다. 이는 자신이 지닌 재물을 이웃에 건네주는 단순한 물질적인 시혜를 뛰어넘는 공생공존의 실천이자 더불어 사는 지혜다. 이미 세속적인 성공의 꼭대기까지 이른 할리우드 도반들은 일찍이 보다 세존에서 왕좌에서 맨발로 내려와 안쓰러운 중생을 보듬어주시던 대자대비를 새로이 배우며 조용히 실천한다. 그들 역시 더욱 아래로 내려와 어려운 이웃들과 어우르는 희열을 즐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말도없는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라면 몇 박스이라도 굳이 자기 이름을 새기고픈 자기과시나 자기만족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시걸 도반은 현대의 흑사병이라 할 AIDS와 HIV에 대해

서도 온갖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이를 단순한 의료비용과 환자수용시설의 보조를 초월하여 하나의 의식개혁 캠페인으로 승화시켜간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는 가족질서, 그들을 향해 경멸과 경계의 차가운 눈길을 던지는 사회적 차별현상을 최소화하여 서로 더불어 살게 하자는 계몽운동이자 대자비의 실천이다. 또한 그는 파킨슨씨 병과 각종 소아질환의 연구에 주력하는 ‘공포의 밤 재단’의 기금조성에도 남다른 열의를 보인다.

그리고 2004년 8월에는 불가리아 소피아에 소재한 퀴치오바니 병원의 소아혈액환자를 위한 골수이식병동을 방문하여 20여 명의 아동 백혈병환자를 지원했다. 또한 외래 환자를 위한 병동과 장기 수용시설 등을 증축하는 데도 거액의 기금을 선포 기탁한 그는 이런 말을 한다.

아동 백혈병환자 등 지원 성금 선뜻

모피 거래방지 등 동물보호운동 앞장

“여기선 제가 스타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스타는 아픈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펴주시는 의료진 여러 분들이십니다.” 이것이 골불성(Buddha Nature)이 아닐까? 생명에 대한 그의 보살핌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다.

철저한 채식주의자인 그는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생각하는 사람들(PETA)로부터 모피 거래방지, 아기 코끼리의 수출금지, 유기견의 도살금지 등 동물보호의 공로로 인도의 상을 수상하고, 실제로 버려진 개들과 한 가족을 이루며 산다. 그와 동물 간의 인연에 대한 일화도 있다. 이 심대에 일본 오사카의 합기도 도장에서 수련하던 그는 어느 날 도장 앞에서 서서대는 떠돌이 흰 개를 만난다.

그런데 왠지 오래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처럼 느껴져 며칠 동안 돌보며 지내는데, 어느 날 그 흰 개가 갑자기 미친 듯 짖어대더니 멀쩡하던 도장이 불길하게 휩싸인다. 큰 화재에서 겨우 목숨을 구한 뒤 그는 그 고마운 흰 개를 사냥으로 찾아다니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성유 스님

티베트 스님들 중지된 피해자 위령제

중국 쓰촨(四川)성 일대의 대지진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티베트의 라마(스님) 500여 명이 5월 13일 티베트의 3대 사원 중 하나인 라사의 드래푼사원에서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지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위령제를 집전한 금년 80세의 담파푼푼 라마는 “참으로 통탄스러운 비극”이라며 “희생된 원혼들의 이탄 천도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라 말했다.

1416년 건립된 드래푼사원의 민주운영위원회 의장인 아왕 푼족라마는 “위령제 직후 라마들이 긴급구호기금으로 약40만 위안을 보시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원에서도 시시각각 피해 속보를 접하며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청하이의 타에르사원에서도 1000명의 라마가 합동위령제를 올리고 구호기금 11만 위안을 모금했으며 간수성 원난성 산시성 등의 티베트 불교사원에서도 위령제와 모금행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출처: ChinaView

티베트 데일리 ‘달라이 라마 책동 규탄’

중국이 티베트의 자치문제에 대한 달라이 라마 측과의 어떠한 협상도 단호히 일축한 가운데 5월 5일 티베트 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티베트 예국적 인민들은 14대 달라이 라마와 추종자들의 범법적 책동을 규탄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특별자치주인 티베트는 물론 그와 인접한 티베트인의 밀집지역을 포괄하는 광역적인 ‘진정한 자치’를 요구한바 있다.

출처: ANI, 新華社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t’s overfull! No more, please!”

차잔에 이미 차가 가득 찼으니 이젠 그만 따르시죠

An American university professor paid a visit to a famous Zen master. While the master quietly served tea, the professor asked this and that about Zen. The master poured the visitor’s cup to the brim, and then kept pouring. The professor watched the overflowing cup until he could no longer restrain himself. “It’s overfull! No more, please!” the professor blurted. “You mind now is like this cup,” the master replied, “How can I fill your cup with Zen unless you first empty it.”

미국의 어느 교수가 이름난 선사를 방문했다. 선사가 조용히 차를 따르자 교수는 선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었다. 선사가 차잔의 가장자리가 넘치도록 졸졸 차를 따르자, 그걸 지켜보던 교수가 마침내 투덜댔다. “차잔에 이미 차가 가득 찼으니 이젠 그만 따르시죠.” 선사가 미소를 지었다. “지금 교수님의 마음도 마치 이 차잔과 같습니다. 먼저 차잔을 비우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차를 채워드리리까?”



반얀 성유 스님 / 그림: 이태수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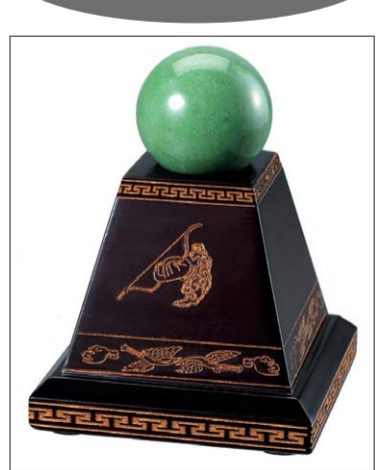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사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석당, 기둥,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 올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채서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남성용이나노반지갑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진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웅공에도 들고 여의를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

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관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력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여성용이나노반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지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사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

라니복지갑은 동사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스하게끔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치한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이나노반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